



안녕하세요? 저는 이연희 수녀입니다. 저는 1988년에 입회하고 1995년에 종신서원을 하여 올해로 수도생활 3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딸만 5명인 가정에서 4째로 태어났습니다. 언니들과 함께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고 대학생 때에는 주일학교 교리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신앙을 조금씩 키워갔습니다. 그러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광주교구 주보를 보고 까리따스 수녀회 성소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소피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젊은 여성들을 위한 피정인줄 알고

가게 되었는데 그 피정이 좋아서 꾸준히 다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사랑의 씨튼 수녀회를 알게 되어서 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저의 생각이 성소로 이어지고 어머니의 반대가 있었지만 입회까지 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하느님의 섭리가 놀랍다는 생각을 하며 감사드리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의 영향으로 국어교사의 꿈을 꾸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시골에서 5년 동안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부천 소명여고에 있을 때 저를 수소문해서 30여 년 전 우리 반 아이들이 찾아와서 너무나 놀랍고 기쁜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수녀원에서 처음 사도직은 1991년에 강진 성요셉 여고에서 시작했고 처음에는 국어와 종교수업을 했는데 첫 서원을 한 후에는 국어교사와 행정실장을 겸임하기도 했습니다.



1999년부터 6년 동안 성요셉여고 교장으로 일하다가 2005년부터 시카고 본당수녀로 일했는데 학교를 떠나 새로운 사도직에 대한 설레는 마음이 가시기도 전에 부천 소명여고에서 교장을



하시던 오세향수녀님이 관구장이 되는 바람에 1년 만에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부천 소명여고에서 5년 동안 교장으로 일했고 소명여중에서 6년교장으로 일하는 동안에는 수도회 이사직을 겸하면서 일했습니다. 학교 사도직은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큰 탓에 쉽지 않은 사도직이지만 역동이 넘치는 곳이고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쁘고 다양한 문제들이 넘쳐났지만 저에게는 참으로 행복하고 활기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사도직을 하던 때를 생각하면 가장 열정적으로 기쁘게 일했던 시기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을 학교사도직에서 보냈으니 행복한 수도여정이었음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현재 저는 2018년 9월부터 다시 시카고 본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80%가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인 관계로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것이 정지된 듯 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타국에서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전화로라도 안부를 묻고 사랑을 나누려고 노력하면서 “하느님 섭리의 때”를 더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느님과 함께 있었던 가장 복된 자리였고 시간이었음을 더욱 절실히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가 그리고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을 습관처럼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Hello! My name is Sr. Lee Yun Hee. I entered the community in 1988 and had perpetual vows in 1995. This year marks my 33rd anniversary of religious life. I was born as the fourth of five daughters. I was baptized when I was in the second year of middle school with my older sisters. I taught children as a catechist at the parish when I was in college. Those years made my faith grow deeper. As time passed, I began to think that I did not want to live as others do. Thinking of my future, I happened to look at the Gwangju diocesan weekly bulletin announcing a vocation retreat hosted by the Caritas Sisters of Jesus. I went to that retreat not knowing that it was a vocation retreat for young women. The retreat was very good to me, so I continued to go to vocation retreats. Later, I came to know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and entered. However, my mother was against my joining the community. Whenever I think of those days, I am so grateful to God that His Providence was upon my journey from dreaming of being a religious sister to entering the community.

As a high school student, I always dreamed of someday being a Korean language teacher because I was inspired by the teachers of Korean. So I majored in Korean Education at college, and I taught students for five years in a rural area before entering the community. While I was a principal at Somyong Girls' High School, the students I taught thirty years ago visited me after searching for me in many ways. It was a touching and joyful moment for me.

My first ministry was to teach the students Korean and religion at Gangjin St. Joseph High School in 1991. After first vows, I also worked as a chief of administration. From 1999 I worked as a principal at St. Joseph High School for six years and then moved to Chicago Korean Martyrs' Church in 2005. I was so



excited to be a parish sister for the first time; however, I had to go back to Korea to be in charge of Somyong Girls' High School because Sr. Oh Sae Hyang, the principal there, was elected as Provincial. Again, I worked as a principal at Somyong Girls' High School for five years and Somyong Girls' Middle School for six years and as a Provincial Councilor. School ministry is not easy because the parents' passion for educating children in Korea is excessive. However, there are always dynamics of young students at school, and I love them; therefore, I was so happy in those years. Recalling those years, I think that time was the peak of my passion for ministry. I am also thankful that I could spend most of my religious life at school.

Since September 2018 I am working again at Korean Martyrs' Church in Chicago. Eighty percent of the parish membership is over seventy years of age. The pandemic affects the daily routines of parish life. I feel that everything is in stop motion since the outbreak of the coronavirus. These days, I often call the elderly of the parish who are alone to say hello, and I think of "the time of Providence." Wherever I am, the place is blessed, as God is present there. I am sure of that. So I try to remember that now is the most precious time and not to be stuck in a rut.

